

추모의 글

이수일 警友님!
당신은 良心의 公人이었습니다

님은 잊습니다.
이 풍진세상 모든 명리를 훌훌 펼쳐
버리고 훌쩍 떠나갔습니다.

님이 63세의 생애를 스스로 매듭지었
다는 부음을 들었을 때 15만 현직경찰
과 120만 전직 경우들은 청천 벽력같은
충격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.

100세를 살아도 이승과의 차별이 서
러워 단 몇 살 아니 단 며칠이라도 생
명연장을 위해 불사약을 찾는 것이 인
지상정이었지만 님은 이제 겨우 이순을
갓 넘은 원숙의 나이에 한 인생에 종지
부를 찢었으니 어찌 이
런 결말을 스스로 지어
버렸단 말입니까?

아속합니다. 서글픕니다. 비록 의리의 길, 선
비의 길, 책임의 길 때 문이라고는 하나 스스로
죽음을 선택할 만큼 그
렇게 현실이 님을 죽음
의 나락으로 몰아갔단
말입니까?

생각할수록 기가 차
고, 자다가도 벌떡 일어
나 생전의 님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
물이 쏟던 끝에 마침내 그 눈물은 통곡
으로 변했습니다.

님이여!

지금 전국의 경우가족들이 흘리는 강
물 같은 눈물을 보십니까?
땅을 치며 통곡하는 천지를 뒤흔드는
저 호곡(號哭) 소리를 들으십니까?

우리는 넘께서 저승길로 떠나셨다는
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혀발이거나
했습니다.

거짓이기를 바랐고, 그런 허무맹랑한
말이 어디 있느냐고 마구 소리치며 완
강히 부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

그러나, 님의 최후는 사실로 밝혀졌
고, 신문과 방송은 연일 님의 소식을
대서특필, 이 땅을 슬픔과 분노와 역겨
움과 서글픔 속으로 몰아갔습니다.

지금 우리는 새삼 님의 생애를 되돌
아봅니다.

님은 일찍이 명문 서울대학교를 졸업
하신후 국가의 동량이며 국민의 수입자
가 될 것을 뜻하고 1971년 30세 짙푸른
상록수 같은 나이에 제19회 행정고시에
합격하여 경찰에 투신, 그로부터 25년
간, 경찰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명예로
운 경찰인으로서 조직에 큰 발자국을
남겼습니다.

이어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
총장, 한국감정원 원장을 거치면서 경
찰인의 존경과 촉망을 한 몸에 받았고,
과목한 성품·원만한 성격·왕성한 책
임감·질서를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는
평소의 언행이 인정되어 국가정보원 국
내담당 제2차장으로 승진되었다가 2003
년에는 호남의 유수한 최고학부 호남대
학교 총장으로 발탁되어 오늘에 이르렀
음을 알고 있습니다.

님은 온 경찰인의 사랑이었습니다.
님은 온 대학생의 진정한 스승이었습
니다.



김광섭
(극작가·전 한국방송
작기협회 이사장)

님으로 하여금 비극적인 종말을 선택
하게 한 원인을 두고 세간에는 설왕설
래 말도 많습니다.
그동안 님은 국정원 2차장 재직시절
의 국정원 도청과 관련, 지난 11월 11
일까지 3차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
받았다고 했습니다.

신문보도에 의하면 님은 검찰의 국정
원 불법도청수사와 관련, 자신의 상사
인 전 국정원장과 전임자인 전 국정원
장 등 두 사람이 구속되자 괴로움을 감
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.

또한 경찰은 검찰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
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
다는 신문의 보도도 보입니다.

필자는 그 엄청난 불
법도청수사에 대해 월가
월부할 쳐지에도 있지 않
거니와 그 잘 잘못을 지
탄하거나 하는 입장에도
있지 않습니다.

다만 필자는 막대한 국가예산과 장구
한 세월이 투입되어 유효한 고
급인력 한 사람을 어처구니없게 잃었다
는 공분을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.

검찰에서도 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
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공식
발표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.

그런데 어찌하여 님은 스스로 자기
생명을 불모로 그런 끔찍한 최후를 자
초했던 말입니까?

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, 친척과 친
지들, 호남대학교 대학생들, 아니 120만
경우들, 수많은 경찰가족은 어찌하라고
홀로 떠나셨단 말입니까?

자신을 신임하고 국가의 요직에 앉혀
주고 막중한 책무를 맡겨준 전임 상사
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
미쳤을 영향을 생각하며 밤새 고민했을
님은, 끝내 스스로를 처단함으로써 자
신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영어의 몸이
된 상사에게 사죄를 한 것입니다.

국록을 축내고, 국가재정을 좀먹고,
국가기강을 흐려놓고 책임질 줄 모르는
공직 풍토에서 님은 상사에 대한 의
리 하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.

고매한 정신, 왕성한 책임감 없이는
단행할 수 없는 님의 단호한 결심에 우
리는 그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.

아! 우리는 지금 님의 남겨주신 위대
한 교훈을 가슴깊이 새깁니다.

“인간의 양심 앞에는 생명이란 흥모
(鴻毛)와 같은 것, 국사(國事)든 사사
(私事)든 스스로 자결(自決)하라!”

그러나 어찌합니까?

이제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으니 백
마디 한탄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?

그저 머리 조아려 가신님의 명복을
빌 때입니다.

극락왕생하소서!

수여하는 고마

장수요령(長壽要領)

- 人生은 험한 山 길 머나먼 旅程 -

1. 환갑(還甲) : 六十에 천사(天使)
가 데리러 오거든 지금 안계신다고 여
쭈라고 하셨습니다.

2. 고희(古稀) : 칠십에 천사(天
使)가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이르다고 여
쭈라고 하셨습니다.

3. 희수(熹壽) : 칠십칠에 천사(天
使)가 데리러 오거든 서둘지 말라 지
금부터 老藥을 즐긴다고 여쭈라고 하
셨습니다.

4. 산수(傘壽) : 팔십에 천사(天
使)가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읊모 있다고
여쭈라고 하셨습니다.

5. 미수(米壽) : 팔십팔에 천사(天
使)가 데리러 오거든 조금은 쌀밥을
더 먹고 가겠노라고 여쭈라고 하셨습니다.

니다.

6. 졸수(卒壽) : 구십에 천사(天
使)가 데리러 오거든 그렇게 서둘지 않아
도 된다고 여쭈라고 하셨습니다.

7. 백수(白壽) : 구십구에 천사(天
使)가 데리러 오거든 생각해보고 가겠
노라고 여쭈라고 하셨습니다.

8. 활수(皇壽) : 백십일에 천사(天
使)가 데리러 오거든 갈때가 되오니
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여쭈라고 하
셨습니다.

9. 만수(滿壽) : 백이십에 천사(天
使)가 데리러 오거든 이제 갈때가 찾
음으로 기꺼이 가겠노라고 여쭈라고 하
셨습니다.

(자료 제공: 김형호 회원(百友회 회장))

名士칼럼



신상우
(경찰혁신위원회 위원장,
前 국회부의장)

“革新은 계속 되어야 한다”

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 것 또한 사
실입니다.

그러나, 우리 경찰은 지난 날 어려운
여건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
호하고, 공공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평온
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
다해 왔기에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
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으리
라고 확신합니다.

지금은 경찰이 창경 60년을 맞아 내
건 “New Police, New Start”라는 캐치프
레이즈에 걸맞게 ‘새로운 경찰로 도약
하느냐, 못하느냐’ 하는 중차대한 기로가
아닐 수 없습니다.

경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장 중
요하고도 시급한 것이 “혁신”입니다.

혁신은 거칠어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
라,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난국을 타개하고
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
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찰
혁신위원회를 맡고 보니 각계를 대표하는
분들이 위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어
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

요즘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‘경찰이 정
말 달라졌다’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.
이는 과거와 달리 경찰이 청장을 중심으
로 수사구조 개혁에 뛰어들어 힘쓰는 생각에
아울러, 그동안 경찰의 책임에 걸맞는
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였던
기 때문에 소신있는 법집행을 하기 어
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, 내부적으로도
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닐
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.

다행히, 올해 수사구조 개혁에 전·현
직 구분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 목소
리를 내고, 건국 아래 최대 행사인 부산
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

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
우리 경찰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.

경찰혁신은 한 마디로 ‘경찰이 보다
경찰다워지는 노력’에 다름 아닙니다.

불과 3%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
게 하듯, 경찰은 세상을 지키는 소금 노
릇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. 이것이 바로
경찰이 경찰다움을 끓고 세일즈맨처럼
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.

우리 국민은 경찰이 무한정 친절하기
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, 각종 법집행
과정에서 자신있고 당당하게, 그리고 소
신껏 일하는 모습에서 안도합니다. 이를
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위상이 제대
로 정립되어야 하며, 경찰관 한 사람 한
사람이 높은 자부심과 실력을 갖추어야
합니다.

내년은 창설 6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
아 새롭게 출발하는 “New Police”的 원
년입니다. 이를 위해 혁신을 더욱 강도
높게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
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을 만드는데 노
력해야 할 것입니다. 다시 한 번, 미
려이나마 경찰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된
것을 기쁘게 생각하며, 120만 재향 경우
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.

搜查權은庶民의 마음을 헤아리는者에게



김남석
(수필가, 경우회 이사)

일하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어
야한다. 신속과 능률로 경쟁하
는 시대이다.

인간의 창조적인 에너지를
부정적인 방향으로 분출하면
사회에 비난을 면할 수 없는
탈법 행위가 된다. 법을 위반
하는 사람의 부류와 계층이 따
로 있는 것이 아니다. 다양한
현 세대는 각종 제한 규정에
고의든 과실이든 부지부식 간에 위반자가
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. 그러므로 법의
규제대상은 누구나 된다.

유리같이 투명해야 하는 세상에, 누가
타인의 위반 행위를 감싸고 용서 할 수 있
는가. 아무도 없다. 하여서도 안된다. 법아
래 평등성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.

각종 제한 규칙에 위반하면 소정의 절차
에 따라 정당한 법의 평가를 받은 후에야
마음이 흘기분하게 되고, 사법적 불안으로
부터 해방된다.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
위하여 공평한 절차에 의한 불편과 불안
없이 조사를 받고, 처벌받는 과정이 가장
합리적인 나라를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
한다.

이웃간에 음주 후 우발적인 폭력사건을

자기고장 경찰에서 조사 받고, 같은 내용

습이 정겹다. 오후에는 어제에 이어 와
병증인 경우와 둑거(獨居)경우집을 찾아
위문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. 사람은
누구나 무병장수(無病長壽)하고, 부귀영
화(富貴榮華)를 누리고 싶으나 그 비报复
은 이타포시(利他布施)의 끊임없는 실천
(實踐)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
가의 가르침을 알고는 있으나 수박 겉핥
기식 생활에도 못 미치니 날이 갈수록
아쉬움만 쌓이고 부끄러운 마음 늘 이어
진다.

시당국의 지원으로 회의용(會議用) 의
자(椅子)도 마련하고, 참전경찰유공자회
(參戰警察有功者會)·충의회(忠義會) 등
공조지과·여성동지회, 삼화회 등 친목모
임을 통해 경우위상이 나날이 정립되어
가니 자랑스럽다. 다만 호국 뜻을 다했던
노경우들이 매년 몇분씩 타계(他界)
한다.

순리(順理)라 하지만 인생무상(人生無
常)을 느낀다.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가
난했던 시절 훌륭한 민족지도자의 영도
(領導) 아래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(跳
躍)하면서 치안역군이었던 오늘날의
노경우들의 땀으로 이룬 사회안정의 토
대 위에서 부국강병(富國強兵)을 이루게
되었음에도 응분의 대접도 제대로 못 받
고 음지에서 살다가 가는 분이 대부분이
다. 고인의 관구(棺槨)는 대형태국기로
싸고 경우회(警友會) 조기(弔旗)와 회원

일동명의의 조화, 그리고, 많은 경우들의
조문으로 먼 길 떠남을 슬퍼한다. 마지막
때는 큰잔에 술 가득 채워 극락왕생
(極樂往生)을 빈다. 경찰순찰자 경광등
을 번쩍이면서 선도하는 가운데 사랑했던
가족과 정 깊었던 경우들을 뒤로하고
영생의 길로 떠나니 인생허무도 실감한다.

이런 일 저런 일로 경우회일도 꽤 번
거롭다. 그러나 많은 회원들의 상부상조
(相扶相助)에서 생기는 큰 힘이 바탕이
되어 외로움을 줄이고 애정 한 단체로
발전(發展)해 가니 사회국 관계자나
타단체에서도 경우회가 가장 내실있게
운용한다는 평도 듣는다.

퇴직자 중 아직껏 회원활동에 불참한
몇분을 이번 경우의 날 행사에 초대, 함께
어울려 우리끼리는 서로 아끼고 감
싸주고 경우회운영에 참여하면서 남을
돕기도 하는 선진경우회로 밀고 나가자
고 다짐도 했다.

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박수받는
멋진 경우회로 발전하려면 모든 회원이
소외감(疎外感)을 떨쳐버리고 합심하면
친목이 돈독(敦篤)되어 해가 갈수록 서
로에 위해주는 경우회(警友會)는 빛이 더
날 것이다. 오늘 경우의 날 행사는 많은
회원들의 합심으로 정말 잘 치루었고 특히
모든 준비와 진행에 진력한 金正班
사무국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.



이재열
(충남 아신경우회 회장)

경우애(警友愛)

- 2005년 경우의 날에 -

지 난
11.21은 42
번째 맞이한
불혹지년(不
惑之年)의
「경우의 날」
이어서 좀
뜻 있는 일
로 하루를

보내주신 축하회분의 꽃 향기 속에서